

牛峯李氏大宗報

제 12 호

發行人兼編輯人：李 丙 疇
 發行 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의 2
 印刷 處：서라벌印刷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로구 내자동 198번지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94대중회 총회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 石田(丙疇)박사를 회장으로 선출

감사(萬寧, 健寧) 및 도유사(茂學),
 장재유사(茂錫), 유사(丙鎬, 茂相) 유임

부회장은 준구(서울), 임구(횡성), 철구(대전), 병문(서울),
 병철(서울), 무홍(대구), 만녕(청주), 병녕(음성) 등 8명을 선출

개회 선언문

우리는 한집안 서로 돕고 빛내자!
 우리는 한일가 서로 돕고 빛내자!
 어느덧 1994년, 甲戌년도 이제 바야흐로 저물기 始作
 합니다.

今年는 우리 始祖 文景公께서 탄생하신지 858년 되는
 해이요, 牛峯李氏라는 본관을 물려주고 가신지 782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들 인생이永生을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은, 할아
 버님의 계승이 아버지였듯이, 나를 내아들이, 또 아들은
 손자로 이어간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永生을 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子孫과, 한가족, 한일가를 더
 없이 所重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永生의 뜻
 을 되새길때에 우리는 敬虔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始祖 文景公으로부터 綿綿히 이어내려오는 우
 리 牛峯李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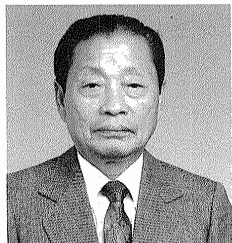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제, 祖上님들의 遺德을 되새기
 어 遠大한 希望과 아름다운 꿈을 품어 이를 이룩함으로
 서 後代에 물려 줄 바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牛峯李이라는 한 핏줄의 가족이 모여 집안의
 和睦을 다지고 發展과 繁榮을 約束하는 날입니다.

牛峯李門의 傳統과 家風을 발판으로 우리 모두는 앞
 으로 더욱 努力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4년 甲戌년의 牛
 峯李氏大宗會 定期總會의 막을 올리겠습니다.(茂學 도
 유사)

1994 내총회찬조금현황

名	찬조내역	名	찬조내역
대전화수회장 천구	100,000	자양동해녕	50,000
이원기무	200,000	부회장병철	300,000
대총회장	100,000	도유사무학	250,000
총무위원 병순	300,000	장재유사무석	250,000
아세아병무	1,000,000	유사병호	250,000
아세아장무	100,000	쌍문동병덕	300,000
총무위원 부탁	100,000	감사만영	500,000
청장년회장 낙녕	200,000	지평공파덕용	100,000
감사진녕	100,000	세종무위원 병덕	50,000
총무위원 병석	100,000	총무위원 병학	100,000
총무위원 병국	100,000	부회장병철	300,000
지평공파만용	100,000	보성창구	50,000
영천대부상	100,000	창원병호	50,000
인선대부상	100,000	보성회	50,000
중앙대병수	100,000	병향	100,000
청장년회부회장 천구	100,000	향	20,000
대구화수회	100,000	총무위원 병태	100,000
범서	20,000	총무위원 태녕	300,000
신무	200,000	총무위원 병길	100,000
부회장 준구	300,000	병	가 훈 10점
총무위원 승녕	100,000		
가평화수회	100,000		
총무위원 병녕	200,000		
유사무상	250,000	계 45명	7,540,000



石田(병주)회장



茂學 도유사



萬寧 감사



健寧 감사



茂錫 장재유사



丙鎬 유사



茂常 유사

대중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사무실마련 모금운동 전개

만년 광일식품사장, 병무 회장이 2천만원 내바

대중회에서는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을지로에 위치한
 대중회 사무실(이주녕 변호
 사 사무실)이 협소하고 불
 편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으
 로 대중회 발전기금을 모금
 중에 있다.

이는 '94 대중회 당시에
 도 당면과제로 밝힌 바 있는
 사무실 문제를 활성화하려
 는 계획으로 이미 만녕(감
 사)광일식품사장과 秉茂 아
 세아 시멘트회장이 각각 천

만원을 내어 2천만원이 모
 금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모
 금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무학 도유사가 10월 12일
 밝혔다.

이 발전계획에 의하면 대
 중회 사무실 기금이 목표액
 에 달성되면 서울 시내를 중
 심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금방명록은 물론 세보에
 등재하여 기념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많은 찬조를 당부
 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94 우봉
 이씨 대중회 총회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선거에서 회장에
 이어 청백리공(淳)에 대한
 石田(丙疇)박사가 전회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부회장은 俊九(서
 울), 壬九(횡성), 喆九(대
 전), 丙文(서울), 丙七(서
 울), 茂鴻(대구), 晚寧(청
 주), 丙寧(음성), 감사에는
 萬寧(문경), 健寧(서울)씨
 가, 도유사에는 茂學, 장재
 유사에는 茂錫, 유사에는 丙
 鎬, 茂常 등 제씨가 유임되
 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여의도
 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앙
 회관에서 무학 도유사의 개
 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泰寧씨의 사회로 이어진
 총회는 시조 문경공 律詩를
 전 도유사 德寧씨의 낭송이
 있는 다음, 대중회장 인사
 (내용 대중보 제11호 참조)
 총무현황 보고(무학 도
 유사), 회계감사 보고(감사
 만녕)청장년회장 인사(낙
 녍), 임원선출 및 강연의 순
 서로 진행되었다.

年高行尊은 晚寧(대전 85
 세)씨와 병욱(광명시 77세)
 에게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이어 청백리공(淳)에 대한
 성중대왕 御詞에 관한(총무
 위원 丙國) 강연을 비롯한
 直養齋文集에 대하여(勞
 茂), 충헌왕 교서에 대한 김
 토내용 발표(茂學), 서봉
 (東寧)전 회장 묘비 제막식
 에 다녀와서(이학박사 泰
 寧)의 순서로 집안내력 알
 기 강연이 있었다. 이어 훌
 립한 어머니/며느리와 模
 範地方宗會(대구 茂輝회장)
 표창이 있었다.

특히, 이날 우봉이씨 대중
 회 창간 10주년을 맞아 창간
 과 계속 편집 주간을 맡아
 온 丙泰(총무위원)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무형문
 화재 제19호로 알려진 이수
 자씨와 斗寧씨의 특별찬조
 출연으로 오랫동안 상봉하
 는 일가들에게 흥겨운 한때
 를 갖게 하였으며, 복권추첨
 행사가 이어져 더욱 다채로
 운 행사가 되었다.

藕船(尚迪)공 사적비 제막식 거행

조선조 시문학의 큰별 그 열 되새겨

지난 5월 14일 연천 관인면 사정리에서 우리나라 한문학계의 큰 별로 알려진 우선공 사적비 제막식이 돌아가지신 130년만에 병주(대중회장)박사를 비롯한 국문학계 인사와 일가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石田(병주)박사와 후학들이 뒷받침하여 대중회 청장년회(회장 낙녕)가 주관한 이 행사는 집안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이룩한 것으로 특히 건립비 중에는 우선공 직손인 승원, 승엽, 경숙 남매가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각각 50만원씩을 내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사적비의 글은 병주박사의 감수아래 정후수(한성대)교수가 짓고 글씨는 서예가 김용현선생이 썼으며 천일석재사가 제작한 것이다.

우선공은 순조 3년때 우봉인으로 청나라에 12차례나 사신을 따라 역관으로 갔다 온 분이며 당대의 시문학자로 나라안에서 보다 청나라 시문학계에 더 알려진 선비로 공의 시문은 제화시(題畫詩)를 비롯하여 기행시등 많은 작품과 금석문의 탁본을 전해 주어 뛰어난 유명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우선공의 서문이 실려 있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저는 우선공(藕船公) 집안인 우봉이씨 문중의 청장년회장 李樂寧입니다.

존경하옵는 병주(丙晞)대중회 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 시문학계(詩文學界) 학자, 문인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과, 문중 일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집안의 전통(傳統)을 빛내고 있는 우선공(藕船公)선조의 사적비건립제막식(史蹟碑建立除幕式)을 갖게 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문중의 청장년회가 선조의 유훈(遺訓)과 유적(遺蹟)을 관리 보존하여 이 뜻을 자손들에게 알리려 이를 거울삼아 서로 화목하고 발전의 길자비로 삼자는 목적을 갖고 대중회의 사업으로 많은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처럼 집안이 빛나게 보인 적은 일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공 선조께서 이룩해하신 행적(行蹟)이

특히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의 주인공이라는데서 그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문학계의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은 역과출신으로 온양군수를 지냈으며 고종 2년(1865년)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동안 우선공의 묘소는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실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이 지역이 실지 회복되자 석전박사께서 관심을 두고 있던 때에 후학인 정후수(한성대교수)박사가 연천국민학교에 근무한 경험으로 묘소를 찾게 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석전 박사의 지도로 『우선 이상적의 시문학』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과 보고

▲ 1992년 2월 5일 신년 인사차 석전 박사댁에 청장년 회원이 모였을 때 박사님으로부터 우선공과 세한도에 관한 내력을 알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3일 대중회 모임에서 우선공이 학문과 공의 행적을 재인식하고 청장년회에서 93년도 선조 묘역 순회찰배를 우선공 묘역으로 결정하여 93년 4월 20일 포천구 관인면 소재 우선공 묘

역을 참배, 이때에 한성대 정후수 교수를 초빙하여 우선공 시문학에 대한 강연을 듣고 청장년회원들은 공의 행장에 비해 초라한 묘역 정지사업으로 사적비를 세울 것을 결정 94년 2월 10일 우선공의 시문학을 연구하고 계신 한성대 정후수 교수님에게 비문 작성을 부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94년 10월 12일 대중회에서 사적비 건립 기금 모금 방법을 협의끝에 뜻이 있는 종친과 중무위원 그리고 청장년 회원들의 모금으로 건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95년 3월 6일 드디어 정후수 박사가 비문을 기초했고 이병주 회장께서 윤색하신 비문을 중국 산둥대학 객좌교수이시며 동방연서원의

一中회장께 글씨를 받아서 천일 석재에 비석제작을 의뢰하여 60여일간의 작업 끝에 오늘 역사적인 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특히 기금 중에는 우선공 직손 승원, 승엽, 경숙 남매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각각 50만원씩을 내어 더욱 힘을 준비 있습니다.

끝으로 우선공 사적비 건립을 계기로 선조들의 유훈과 유적 발굴 보존 사업이 더욱 확대가 도모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금일 우선공 사적비 건립 제막식을 갖기까지의 경과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 5월 14일
우봉이씨 청장년회장



▲ 우선공 사적비 제막식을 마치코



▲ 죽장서원 전경



▲ 우선공 사적비



▲ 출품 특선 당선된 가훈 작품

지의 집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문학계(國文學界)에서 조선조 중인문학(朝鮮朝 中人文學)의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선조께서 중인문학의 대표적 위치에서 금자탑

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히 평생을 국문학계에 몸을 바치신 저의 집안의 石田박사께서 이룩한 학문의 결실에서 얻어진 보람이 아닌가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洙교수님을 초빙하여 우선공(藕船公 李尚迪)의 시문학(詩文學)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이 사실이 문중에 알려지면서 청장년회에서

그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고충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가다듬어 우선공을 추모하게 되니 한층, 마음 뿌듯해짐을 금할길 없습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 만, 우리들 인생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이와 같은 선현의 말씀을 조상을 통해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진리를 거늘 삼아 자손만대의 번영과 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심오(深奧)한 뜻을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음을 느끼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끝으로 만사를 제치시고 오늘, 저희 집안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과 일가 친척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 5. 14
牛峯李氏 靑壯年會長 李樂寧拜

선조 송모사업 계속 발전 모색

청장년회장 앞장서서 전개다짐

을 쌓아 주셨다는 그 가치가 후손들이 세운 비석을 통해 햇빛을 받게 되었다는 데서 한층,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귀

이 사업이 시작되기는 지난 1993년 4월 25일, 청장년회(靑壯年會)가 연례행사(年例行事)로 개최하고 있는 선조 묘소 순례(先祖墓所巡禮)때 한성대학의 鄭後

발기(發起)가 되었으며, 우선공 직손(直孫)인 승엽, 승원, 경숙 3남매의 가목한 성금까지 합친 청장년회원들의 피나는 활동의 결과로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6·25때 참전한 丙辰(병순) 일등병, 사망을 전사로 명예회복

집안의 긍지를 심어 준 훌륭한 며느리 청송 沈씨 有慶여사, 이제 손자손녀도 자부심 가져

6. 25 당시 국군으로 참전 부상을 입고 1951년전 제3 육군병원에서 숨진 시아버님의 행적을 추적, 사망으로 잘못 기록된 기록카드를 전사로 바르게 잡아 국가유공 전사자로 대우를 받게한 우봉일가의 장한 며느리가 있어 대시간공 문중은 물론, 남편과 아들의 긍지를 심어 주었다.

청송 심씨 유경여사는 대 시간문중의 先寧(49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16동 407호)씨와 결혼 후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 자녀교육에 남다른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내력을 알면서부터 20여년간 시아버님(丙順세보명)에 대한 사망에 대하여 의문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6. 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로서 육군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전사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전사자라면 당연히 원호대상자가 되어 하는 데 그동안 시어머니나

남편은 물론, 시삼촌들까지 시집에서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할아버지의 報勳을 일깨워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데 용기를 내어 집안의 만류에도 육군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직접 추적조사를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진정을 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2년동안 활동한 보람은 전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40여년만에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92년 4월 24일 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 전사자로 확인이 되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아들인 誠茂(21세)군과 딸 현정(19세)양도 6·25 전쟁참전 용사의 자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할아버지의 용감했던 뜻을 잇게 되어 군인으로 입영되면 3대가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셈이 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심여사는 沈現澤(청송심씨 중진회 부회장)씨의 4남매(2남2녀)의 맏딸로 수원이 고향이다. 이 사실은 대종회 총회에 참석한 여사를 병주회장이 상명하면서 알려지게 되어 우봉이씨가문을 빛낸 장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하였다.

『강빈매(江濱梅)』로 최우수상 수상

이응숙(李應淑) 여사
수원시 노인 회호 서예대회에서

며느리(尹泰順)는 문학박사 학위받아
부부 박사집안으로 겹친 경사

지난 9월 29일 수원시가 주최한 제6회 노인 회호대회에서 화용(華用:감찰공 23세손)씨의 부인 이응숙(68세)여사가 초서부분에서 『강빈매』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응숙여사가 당일 과장에서 출세된 글은 『忽然寒梅樹 開化漢濱水 不如春色早 疑是弄珠人』이라는 내용의 오언시구로 즉석에서 완성시킨 것이다.

또한 10월 7일 경기도청이 주최한 제7회 경기도 노인 서예 대회에서도 이응숙여사가 작품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하여 우봉이문의 가풍은 물론 선비집안임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 8월에는 둘째 며느리인 파평인 윤태순여사(남편 勳九 50세:명지대 공학박사)가 성균관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바 있어 이를 계기로 문중에 경사가 겹쳐 주위의 부러움과 함께 우봉 이문의 전통적인 가문임을 과시하게 되었다고 문중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진찬이 자자하다.(무학 도유사 제공)



▶심정공자의 열매가 되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귀락당 선조가 세운 竹亭書院 병천 건녕씨가 방문 조사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는 죽정서원(竹亭書院)이 귀락당 선조께서 원장으로 계시던 곳이라 하여 서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통보에 따라 '94년 10월 8일(~9) 丙天 중무위원과 健寧감사가 방문(확인 조사차) 한바 있었다.

조선조 숙종 7년에 세워진 죽정서원은 당시 대원군의 철퇴령에 따라 폐원된 것을 8. 15 광복후 다시 증건하여 귀락당(晩成) 선조를

비롯하여 朴成乾, 朴權, 朴勝源, 朴○ 등 다섯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賜額書院이 아닌 선비들이 세운 서원으로 함양 박씨 문중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이 어려워 관리상태가 형편이 없다고 전고를 지낸 朴燦宇씨가 말했다. 그런데 이 죽정서원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중정(中丁日)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병천 중무위원 제공)

통정대부(基用) 묘비 건립 김포군 월곶면 여금산에서

지난 3월 24일(~27) 김포군 월곶면 석원동에서 감찰공 14대손인 통정대부 기용(基用) 선조의 묘비건립과 그 자손묘(命九, 錫九, 鼎九, 泰九)의 정리작업이 실시되어 4월 5일 건립 추도식을 거행했다.

병준씨가 중심되어 관계 일가들이 여덟분의 분상을 모시고 있는 가족모역을 정비하여 집안의 변명과 자손들의 친목의 단목을 위해 실시된 이번 공사는 700만여 원이 소요되었는데 공사내용은 비석을 비롯하여 묘비와 상석, 꽃병 등으로 단장하였다.

그런데 통정대부(基用)는 고종 29년 임진 무과에 급제후 정미년에 가례도감 화원상을 받아 정이품 통정대부에 오른 분이다.

3남 2녀중 둘째 아드님으로 슬하에는 명구, 석구, 정구, 태구의 네분을 두신 선조로 항상 불편부당하고 가법인 忠厚謹愼 그대로 처신한 분이였다.

통정대부공의 묘비문은 병태(국방부 전사편찬위원) 중무위원이 짓고 글씨는 서예가 東谷(金在化) 선생이 썼다.

그런데 이 묘비 건립기금은 丙哲, 丙泰, 丙濬, 丙훈, 義寧, 樂寧, 光寧, 孝寧, 六寧, 七寧, 奉寧 일가가 나누어 모금된 것이다. (낙녕 청장년회장 제공)

게시판

동정 ▲忠範(변호사)사 무소 이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7-1 삼덕불산 빌딩

- 4층 ▲忠茂(육군준장) 육군본부 정훈 공보실장(육군대변인) 인사 ▲樂寧(청장년회장) 장남 상준군 결혼(11. 11) 목화예식장서 ▲萬寧(김사) 장남 旻茂군(신부 이금희양) 6. 17 오후 2시 도림장로교회 ▲丙天(중무위원) 청주예술의전당 주최 전국가훈 전시회 우봉이씨가훈 출품 특선 수상(9. 25) ▲청주 화수회주관 영모당 신축 병주 회장, 무학 도유사, 건녕감사, 병조 박사, 병천 중무위원, 병호유사 참석 ▲加平화수회 총회개최(8. 6) 구리시 교문리 안건 임원 개선 회장 丙軾 부회장 丙天 周衡 감사 喆衡 桓茂 간사 茂榮 茂錫 茂貞(신임) 善範(신임) 範錫 [시제] ▲'94. 11. 5 참관공 문중(서울 개봉동) '94. 11. 6 의열공 문중(옥천 영보당) ▲대시간공(횡성) 병천, 건녕감사 참석 ▲3. 24 通政大夫(基用) 공묘비 건립

충헌왕(忠憲王) 교서(敎書)

— 그 말미를 바로 잡음 —

도유사 茂學

문제점 : 우리 우봉이문의 많은 가정에 전하여지고 있는 족보 또는 파보 등에 등재 되어 있는 충헌왕 교서[또는 부충헌왕교서라 써서 부(附)자를 붙이기도 하였음]는 필자본인 관계로 오자가 많이 있어 그 본래의 뜻을 알아보기 어려워 충헌왕 교서를 족보(族譜)나 파보(派譜) 등에 수록 하면서도 교서 말미에 본문보다 적은 글자로 그 의문점을 부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후간의 필자본에는 그 의문점에 대한 부기를 교서의 일부로 착각하여 기입한 곳도 있는 형편이다.

(元宗) 즉위년인 1259에 고려국에서 시호를 안효, 묘호(廟號)를 고종(高宗)이라 하였는데 1310(충선왕 2년)에 원(元)나라에서 충헌(忠憲)으로(贈諡)한 것이니 원래는 고종 또는 안효대왕교서라 쓰여져야 할 것이나 당시는 원나라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충헌왕교서라 쓰이었으니 이야말로 가탄할 일이다.

필자는 왕의 교서 말미에 이와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문귀가 있음에 대하여 일말의 의문을 품어 온지 오래이나 그간의 생업상의 시간적 제약으로 이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동문선(東文選)에서 이 충헌왕교서를 접하게 되었다.

원래 동문선은 신라때부터 조선조 숙종대까지의 훌륭한 시문 등을 모은 책인데 전부 정편(正篇) 30권, 속편(續編) 21권, 목록 3권으로 되어 있다.

정편은 성종 9년에 서거정(徐居正)과 같은 대학자 등에게 명해서 편찬 하였으며, 속편은 중종연대에 편찬 또는 개편하였는데 정편에는 신라~조선 초기의 시문을 수록하고 속편에는 그 이후 숙종대까지의 시문을 모았다.

다행이도 이와 같은 귀중한 문헌이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

서 1968~1970년에 걸쳐 12책으로 번역판을 간행하였기에 누구나 접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그 가운데 26권의 제고(制誥)중

〈除 宰臣 朴文成 李子晟 宋 宰 任景肅 敎書 李穡用〉

제 재신 박문성 이자성 송순 임경숙 교서 이장용〉

에서 그 원문과 번역문을 찾기에 이르매 선조님들이 못내 아쉬워 하시던 바가 밝혀지게 되었음을 큰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 원문을 유첨(有添)과 같이 소개 하오니 갖고 계신 족보 또는 파보에 이를 첨부(添付)하셔서 후일에 다시 종전과 같은 착오나 헛갈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교서에는 원문의 내용 중에서 이자성(李子晟·시호 義烈) 공에 관한 부분만을 뽑아서 같은 교서를 받은 분(박문성, 송순, 임경숙) 들에게도 해당되는 교서전문(敎書前文)과 마제(麻制)의 제서(制書)를 앞에 두고 말미에는 원문의 결어를 이었다. 이는 우리 우봉이문의 종인들이 각각 그 전승 받은 충헌왕교서의 전모를 보기 용이 하게 하고자 함이다. 우봉이문추원록(1991년 발행) 61~62면의 등재내용에도 이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 영모당 신축기념식을 마치고

永慕堂신축 낙성식 거행

시조공과 선조 위패 26위 모셔

지난 7월 16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에서 의열공 문중의 신축한 永慕堂의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식에는 昇茂 의열공 문중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일가와 특히 丙麟 대종회장과 茂學 도유사, 병천 중무위원, 健寧 감사, 丙鏞, 茂常 유사가 참석해서 식을 더욱 빛냈다. 그런데 이 영모당은 건평 24평으로 3,000만원의 성금예산으로 신축한 것으로 이곳에는 문경공 시조를 비롯하여 위패 26위를 봉안하고 있다. (병천 중무위원 제공)

전승 가훈 및 예서작품 입선

서예가 丙天중무위원

지난 6월 22일 대한민국 서예전에서 병천 중무위원이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도암선생의 益梅詩를 예서체 작품을 출품한 것이 입선되고 9월 25일 제1회 대한민국 가훈 서예전에서는 우봉 이문의 전승 가훈인 忠厚謹愼을 출품한 것이 특선 당선되었다.

근간 출판

陶庵의 三官記

李丙疇편

옛한글로 쓴 당시의 사회상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한 수상록

朱子家禮를 우리실정에 맞도록

도암선조가 재편찬한 『四禮便覽』은

이백팔십여년의 전통 그대로 지켜

오고 있는 살아있는 의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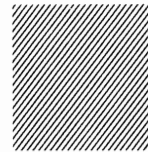
국역 사례편람

陶庵 李緯編

값 20,000

진안내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

牛峯李門 追遠錄



우봉 이씨 대종회
장재유사 李茂錫

주문청약처 253·7127

서울 중구 신당동 교동안전회관 608호